올스타전 베스트 12

최형우

양현종

최지민

소크라테스

KIA, 나눔 올스타 4명 배출…정해영 팬투표 1위 하고도 고우석에 밀려

이정후 팬·선수단 투표 모두 1위…7월 15일 사직구장에서 올스타 대결

KIA 타이거즈의 최형우, 양현종, 최지민, 소크라테스가 '별들의 잔치'에 나선다.

KBO가 26일 2023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전 '베스트 12'를 확정해 발표했다. 명단은 6월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팬 투표와 10개구단 감독, 코치, 선수가 참여한 선수단 투표를 합산해 최종 확정됐다.

KIA에서는 투·타의 최고참이자 KBO의 역사인 최형우와 양현종이 각각 나눔 올스타 지명타자와 선발투수 부문 1위에 올랐다. 올 시즌 KIA의 필승조로 깜짝 활약을 하고 있는 최지민도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프로 2년 차에 올스타 베스트 멤버가 됐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올스타전 참가가 불발됐던 소크라테스도 다시 한번 팬들의 확실한 지지를 받으면서 올스타에 선정됐다.

최다 득표의 영예는 키움 이정후에게 돌아갔다.

이정후는 팬투표에서 239만2236표 중 124만2579표(51.9%)를 기록하면서 팬 투표 1위에 올랐다. 선수단 투표에서도 355표 중 가장 많은 276표(77.7%)를 차지하면서 팬과 선수 모두에게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정후는 2018년 두산 양의지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팬 투표, 선수단 투표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한 선수가 됐다.

또 이정후(276표)는 2016년 NC 나성범, 2022년 삼성 피렐라의 236표를 뛰어넘는 역대 최다 선수단 득표·득표율로 기록했다. 데뷔 후 첫 최다득표 1위에 오른 이정후는 5시즌 연속이자 통산 6번째 '베스트 12'에도 선정됐다.

드림 올스타 외야수 '베스트12'에 선정된 롯데 고졸 신인 김민석은 2009년 KIA 안치홍, 2017년 키움 이정후, 2019년 LG 정우영에 이어 고졸 신인으로는 역대 4번째 베스트12가 됐다. 2017년 이정후 이후 6년 만에 탄생한 고졸 신인 타자 베스트 12이기도 하다.

드림 올스타에서는 롯데가 가장 많은 7명, 나눔 올스타에서는 KIA가 4명의 올스타를 배출했다.

KIA 정해영은 마무리 부문 팬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선수단 투표 합산 결과 LG 고우석에게 총점 0.38점 차 역전을 허용했다.

최지민과 함께 롯데 박세웅·노진혁·김민석, 키움 김혜성, NC 김주원은 데뷔 후 처음으로 베스트 12에 선정됐다.

한편 2023 올스타전은 7월 15일 사직구장에서 열리며 드림 올스타(SSG, KT, 삼성, 롯데, 두산)와 나눔 올스타(KIA, 키움, LG, NC, 한화)로 나눠 대결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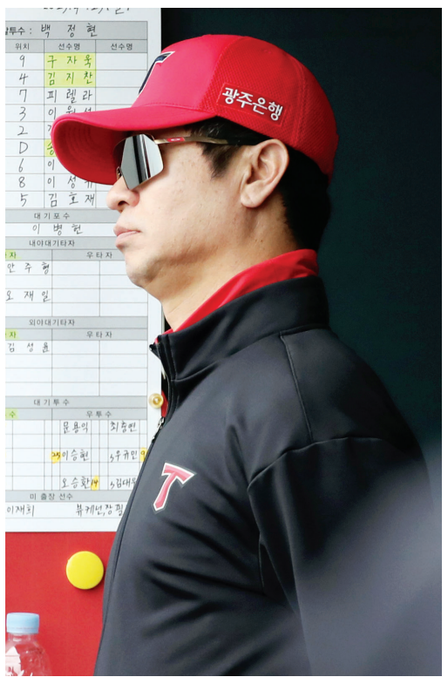
드림 올스타 SSG 김원형 감독과 나눔 올스타 키움 홍원기 감독이 감독 추천으로 각각 13명씩 추가 선발해 26명으로 팀을 꾸리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종국 감독, 위기 관리 능력 '시험대'

타이거즈 전망대

주중 키움 홈경기·주말 LG 원정
지난 주 2승 3패로 8위 추락
선발 투수 정상화 무엇보다 시급


김종국 감독

KIA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8위로 내려 앉은 KIA가 주중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 이어 주말 잠실에서 LG 트윈스와 원정경기를 갖는다.

KIA는 지난 주에도 2승 3패로 마이너스 승률을 기록했다.

주말 KT위즈와의 경기에서 비로 한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1승 1패를 주고 받았고, 한화 이글스를 상대한 주중 3연전에서는 1승 2패에 그쳤다.

KIA는 한화와 첫 경기에서 6-4 신승을 거뒀지만 이후 두 경기에서 메디나와 이의리가 선발로 5회를 채워주지 못하면서 연달아 패배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올 시즌 한화전 3연속 루징 시리즈가 남았다. 특히 3연전 마지막 대결이 펼쳐진 22일에는 소크라테스의 황당한 주루사가 나오는 등 단 1점도 만들지 못하고 0-1 영봉패를 당했다.

공·수에서 부담이 많았던 야수진의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KIA는 지난 주 5경기에서 5개의 홈런을 기록하면서 SSG 랜더스(11개)에 이어 팀 홈런 2위에 자리했지만 팀 타율은 0.182에 그쳤다.

그나마 위안은 김도영과 나성범의 복귀다.

지난 20일 퓨처스리그에서 실전에 나서면서 복귀 시동을 걸었던 두 선수는 23일 1군에 콜업된 뒤 바로 선발 라인업에 섰다.

1번 타자 겸 3루수로 나선 김도영은 첫 타석에서부터 복귀 안타를 기록했고, 도루와 득점까지 만들었다. 복귀전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한 김도영은 두 번째 경기에서는 2루타 2개로 멀티히트를 이었다.

5번 지명타자로 시즌 첫 경기에 나섰던 나성범은 4번째 타석 만에 안타를 신고했다. 우측 담장 넘어가는 시원한 홈런으로 시즌 첫 안타를 만든 나성범은 24일에는 우익수로 출장해 홈보살을 성공시키면서 어깨 자랑도 했다.

KIA가 애타게 기다렸던 두 사람이 복귀와 함께 타선에 스피드와 파워를 더해준 만큼 김종국 감독은 야수진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용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선발 정상화다.

KIA 선발진이 지난 주 5경기에서 소화한 이닝은 20.1이닝에 불과하다. 윤영철이 한 턴 쉬게되면서 대체 선발을 투입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아쉬운 결과다.

그나마 앤더슨과 양현종이 6회까지 마무리해줬지만 메디나는 2이닝 3실점 부진을 이어가면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이의리의 제구 난조도 여전한 숙제다.

손가락 물집이 생긴 앤더슨의 등판도 밀렸다. 25일 김유신을 대체 선발로 예고했던 KIA는 비 때문에 이 경기를 건너뛰고 27일 키움전 선발로 이의리를 낙점했다.

선발진 이닝이 턱 없이 부족하면서 불펜진의 부담은 많아졌다. 여기에 예측불허의 불펜 투입과 교체가 계속되면서 불펜진의 부담이 늘었다. 결과적으로 윤영철의 '휴식 타이밍'도 늦었다. 결과, 과정 모두 좋지 않았던 만큼 벤치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무더위에다 장마까지 찾아오면서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최상 전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운용의 묘가 절실한 한 주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신유빈, 일본 유망주에 져 튀니스 탁구대회 준우승

신유빈(16위·대한항공)이 일본 유망주 하리모토 미와(25위)에게 패하며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컨텐더 튀니스 탁구대회(총상금 7만5000 달러) 준우승을 거뒀다.

신유빈은 25일 튀니지 튀니스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여자 단식 결승에서 하리모토에게 2-4(8-11, 5-11, 9-11, 11-7, 11-7, 8-11)로 졌다.

이로써 신유빈은 임종훈(한국거래소)과 짝을 이뤄 나선 혼합 복식에 이어 여자 단식에서도 준우승하며 이번 대회를 마쳤다.

신유빈은 전지희(미래에셋증권)와 조를 이룬 여자 복식에서는 준결승에서 탈락했다.

이날 신유빈은 하리모토의 파워에 밀리며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으나 4게임과 5게임에 펼쳐진 몇 차례 랠리 싸움에서 승리한 끝에 게임 포인트 2-4로 따라붙었다. 하지만 6게임, '영점'을 다시 조정한 하리모토가 결국 승리를 가져갔다.

하리모토는 신유빈보다 3살 어린 15세로 일본 여자 탁구의 차세대 에이스로 기대를 모으는 선수다.

/연합뉴스

한국 17세 이하(U-17) 축구 대표팀 김명준(오른쪽)이 25일(현지시간) 태국 빠툼타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아시안컵 대회 태국과의 8강전에서 전반 추가골을 넣은 뒤 윤도영과 함께 점프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U-17 아시안컵 축구 태국 꺾고 4강 진출

강민우 등 득점포 4-1 대승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한국 17세 이하(U-17) 축구 대표팀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아시안컵 8강전에서 태국을 꺾고 준결승에 진출하면서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5일(현지시간) 태국 빠툼타니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강민우(울산현대고)-김명준(포항제철고)-윤도영(충남기계공고)-김현민(영등포공고)의 릴레이 득점을 앞세워 4-1로 대승했다.

준결승 진출을 확정한 한국은 이번 대회 1~4위 팀에 주어지는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11월 10~12월 2일·인도네시아) 본선행 티켓을 확보했다.

이로써 한국은 2019년 U-17 월드컵(8강 진출)에 이어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에 나서게 됐다. 더불어 U-17 아시안컵 4강 진출도 2018년 대회에 이어 2회 연속이다.

한국은 29일(한국시간) 오후 11시 빠툼타니 스타디움에서 4강전을 펼쳐 결승 진출을 다툰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역대 두 차례 우승(1986년·2002년)을 맛봤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10골을 쏟아낸 변성환호의 '다득점 본능'이 또다시 폭발한 경기였다.

한국은 김명준(포항제철고)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놓고 좌우 날개에 양민혁(강릉제일고)과 윤도영(충남기계공고)을 배치한 4-1-4-1 전술로 나섰다.

태극전사들은 전반전 킥오프 4분 만에 득점포가 터지면서 기선 제압에 나섰다.

페널티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따낸 프리킥 상황에서 백인우가 페널티지역으로 볼을 투입했고, 공격에 가담한 센터백 강민우가 골 지역 정면에서 번쩍 솟아올라 머리로 방향을 바꿔 골 그물을 흔들었다.

선제골을 내준 태국은 잔뜩 웅크린 채 역습을 노렸고, 전반 16분 중원에서 티라팟 프루에톤이 찔러준 패스를 두차디 브라나주타논이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넘어지며 오른발 슈팅을 시도한 게 한국의 골대 오른쪽 구석에 꽂혔다.

한국은 전반 36분 두 번째 골맛을 봤다. 최전방 스트라이커 김명준은 페널티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윤도영이 왼발로 투입한 프리킥을 골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끝으로 살짝 방향을 바꿔 경기를 2-1로 다시 리드했다. 김명준의 득점은 이날 경기의 결승골이 됐다.

한국은 후반 24분 태국 진영 왼쪽 측면에서 투입된 크로스를 백인욱이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강하게 찬 슈팅이 골키퍼에 막혀 흘러나오자 윤도영이 지체 없이 왼발로 때려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었다. 한국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교체로 투입된 김현민이 후반 39분 페널티 지역 왼쪽 부근에서 오른발 감아차기로 마무리 득점에 성공한 뒤 '관제탑 세리머니'를 펼치며 태국의 항복을 받아냈다.

한편, 이날 득점을 터트린 김명준과 윤도영은 나란히 4호골을 터트려 득점 공동 선두로 나섰다.

/연합뉴스